SK, 바이오연료 사업 참여 "러시"

SK네트웍스, 베트남 합작 자트로파 확보 … SK케미칼은 공급 본격화

고유가 속에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으며 미래성장 사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연료 사업에 SK그룹 계열사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최근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 현지기업과 협력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바이오디젤 원료 자트로파를 확보하는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 사업이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데다, 중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동남아 후발국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원료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풍부하고 농업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자트로파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20만 ha의 재배부지를 확보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한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2007년 4월 바이오디젤 생산기업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공급에 나서고 있다.

SK케미칼은 SK에너지와 S-Oil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한편으로 중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트로파 재배사업에 뛰어들었다.

SK에너지 계열의 자영 석유대리점인 서울석유가 설립한 JC케미칼은 SK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SK에너지 출신 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범 SK그룹 계열 바이오연료 사업체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JC케미칼은 세계적인 곡물유통기업인 카길 등을 통해 대두유 확보사업을 벌여 2008년부터 SK에너지와 S-Oil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며 국내 주요 바이오디젤 공급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18>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